

내수 점유율 뚝뚝...고민 깊어가는 현대·기아차

심해도 너~무 심한 자동차 용어 한글 홀대

현대·기아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차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 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독식해오던 안방시장을 수입차와 다른 완성차업체에 내준 것이다.

지난 12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9월 내수시장 점유율은 67.3%로, 지난해 12월(66.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보다는 1.1%포인트, 지난해 9월보다는 1.3%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치다. 특히 현대차의 점유율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

현대차의 점유율은 올해 4월 쏘나타 신차 효과에 힘입어 44.6%를 나타낸 후 5월 43.6%, 6월 42.8%, 7월 40.8%, 8월 39.1%, 9월 37.2%로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상반기 신차가 없어 고전하던 기아차는 하반기에 신형 쏘렌토와 카니발을 앞세워 그러나 점유율을 떠받치고 있다. 기아차의 점유율은 6월에 25.4%까지 내려앉았으나 7월 28.9%, 8월 29.3%, 9월 30.1%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친 연간 점유율은 2009년 76.8%에 달했으나 2012년 74.6%, 2013년 71.4%로 낮아지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9월 67%...올 최저치로 떨어져

수입차 밀려오고 신차 효과는 반짝

4분기 ‘아슬란’ 등 출시 회복 기대

신형 쏘렌토 앞세운 기아차는 선전

점유율은 69.6%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70%선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현대차의 승용차 판매량을 보면 쏘나타와 제네시스 2개 차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종의 판매량은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쏘나타는 1~9월 작년보다 17.7% 증가한 8만414대, 제네시스는 두 배(199.9%) 가량 늘어난 2만756대가 팔렸다.

반면 주력 차종인 아반떼는 6.4% 감소한 6만5075대에 그쳤으며 액센트(-24.4%), 벨로스터(-43.2%), i30(-26.8%), i40(-53.7%), 예쿠스(-30.9%) 등도 모두 두자릿수 대의 감소율을 보였다. 신차 효과가 예전만 못한 것도 현대차의 고민이다. 신차 효과란 새 차가 나온 뒤 일정 기간 수요가 반짝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6개월 정도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LF쏘나타의 경우 출시 초인 4월과 5월 두달 연속 1만대 넘게 팔렸다가 8월에는 5000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그나마 9월에 LF쏘나타 택시 모델이 출시되면서 간신히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랜저 역시 7월에 디젤 모델이 출시됐지만, 올들어 그랜저 전체 누적 판매량은 작년보다 1.2% 오히려 줄었다. 가솔린 모델 수요가 디젤로 옮겨왔을 뿐, 전체 판매량을 키우지는 못한 것이다.

현대차는 4분기에 그랜저와 제네시스 중간급인 고급세단 ‘아슬란’과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면 점유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달 출시하는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도 종전보다 연비를 10% 이상 개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4도 하이브리드카인 이 모델은 모터쇼에 출품돼 인기를 끌었으나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됐다. 몇 달에 걸친 리콜 LED 헤드라이트와 파노라마 선루프 등 옵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보다 외국어가 훨씬 많이 섞인 위와 같은 문장은 자동차 회사의 자료나 언론 기사, 자동차 관련 블로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용어가 우리말로 충분히 옮길 수 있는 단어까지 불필요한 외국어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우리말로 쓰는 것이 가능함에도 습관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자동차 관련 단어는 어렵잖아도 수십 개가 넘을 정도로 넘쳐난다. 위의 첫 문장에서도 하이브리드카는 복합동력차로, 모터쇼는 자동차전시회, 브레이크는 제동장치, 리콜은 제작결함 시정조치 등으로 바꿀 수 있다. 또 달리는 판매원, 헤드라이트는 전조등으로 옮길 수 있고, 선루프는 국립국어원이 지붕창이라는 순화된 용어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다. 옵션은 선택 사양이라는 우리말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들 단어는 대중에게 더 익숙하다는 이유로 외국어인

국적불명 외래어 남발

‘누비라’ ‘무쏘’ 이후

한글 차명도 수년 실종

채로 그냥 사용되기 일쑤다.

비단 자동차 관련 용어뿐 아니라 차종 이름에서도 한글은 홀대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국내 자동차 제작 역사 속에서 탄생한 수십 종류의 승용차, 상용차 가운데 한글 이름을 달고 나온 차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의 ‘누비라’, 쌍용자동차의 ‘무쏘’ 등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불과하다. 나머지 차명은 죄다 영어와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으로 작성됐다.

자동차업체는 자동차 관련한 외국어의 범람 현상은 자동차의 탄생과 제작 역사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어져오다 보니 용어가 그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굳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품을 외국어로 표현해야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선입견도 일부 작용을 했다고 분석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용어에 무분별하게 외국어가 많이 섞여 쓰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어느 정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막상 한글로 바꿔 사용하면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자동차 제작사들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차를 파는 글로벌 업체로 성장했다”며 “지금은 차량에 한글 이름을 붙이면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업계의 나름의 사정에도 현재와 같은 외국어 사용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글학회 회장인 김중택 경북대 명예교수는 “십수년 전 세계화라는 화두가 번지며 국민은행이 KB은행으로, 농협은 NH로 바뀌더니 이제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 이름, 차 이름까지도 무슨 뜻인지 모를 외국어에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다 ‘야기에게 우유를 준다’는 말도 시간이 지나면 ‘베이에에게 밀크를 준다’는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연합뉴스



제네시스

현대차 제네시스·쏘나타

북미지역 ‘올해의 차’

10대 후보에 나란히 올라

2개 차종 동시 등재는 현대차 유일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쏘나타가 북미지역 ‘올해의 차’ 10대 후보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북미시장에 진출해 있는 완성차 브랜드 중 2개 차종을 올해의 차 후보로 올린 곳은 현대차가 유일하다.

북미 올해의 차 심사위원 토니 스완은 “현대차의 제네시스와

쏘나타가 29개 차종간 경합을 통해 10대 후보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1967년 이후 생긴 신생 브랜드로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전했다.

현재 2015 북미 올해의 차 10대 후보에는 현대차의 두 차종 외에 아우디 TLX, 아우디 A3, 크라이슬러 200, 포드 머스탱, 혼다 피트,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도요타 캠리, 폴크스바겐 골프 GTI가 올라있다.



쏘나타

이들 10대 후보 차는 연말까지 3개 후보로 간추려지며 내년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2015 북미 올해의 차’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올해로 22회째인 ‘북미 올해의 차’는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기자 49명이 심사에 1위 차종을 발표하는데 그간 현대차가 2009년 제네시스와 2012년 아반떼로 2차례 수상한 바 있고 북미 메이커가 12차례, 유럽 메이커가 4차례, 일본 메이커가 3차례 상을 탔다.

/연합뉴스

9월 수입차 판매 작년 동기비 34%↑...벤츠, BMW 제치고 1위

독일차 69%...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메르세데스-벤츠가 BMW를 제치고 33개월 만에 국내 수입차 부문 월 판매량 1위에 올라섰다. 또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올 들어 세 번째로 1만7000대를 넘어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달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 전월보다 3.6% 증가한 1만7027대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1만2668대)에 비해서는 무려 34.4% 늘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늘어난 14만5844대를 기록했다.

브랜드별 판매실적을 보면 메르세데스-벤츠가 작년 같은 달보다 45.6% 늘어난 3538대를 판

매해 3303대를 판 BMW를 제치고 판매 1위에 올랐다. 벤츠는 신형 C클래스, GLA클래스 등 신차효과와 E클래스의 꾸준한 판매로 2011년 12월 이후 2년9개월 만에 국내시장 수입차 1위를 차지했다.

BMW는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에 1위를 한 차례 내준 뒤 10개월 만에 2위 자리로 밀려났다. 벤츠와 BMW 뒤를 아우디 2349대, 폴크스바겐 2289대가 따르며 독일차가 전체 수입차 판매량의 69.1%를 차지했다.

독일차에 이어 포드 733대, 도요타 666대, 크라이슬러 566대, 렉서스 537대, 랜드로버 443대, 미니 434대, 닛산 335대, 혼다 317대, 볼보 298대, 인피니티 294대, 푸조 289대, 포르세 284대 순이었



메르세데스-벤츠 GLS

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719대)이었고 벤츠 E220 CDI(610대), 아우디 A6 35 TDI 콰트로(446대)가 뒤를 따랐다.



폴크스바겐 티구안

운대상 수입자동차협회 전무는 “9월 수입차 신규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해소 및 신차효과와 더불어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힘입어 전월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관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동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월계동 4층 17억(보2.2억 월85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4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상가 신축 용지
- 창고/공장 용지
- 전원주택용지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6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